

## 북한 조선중앙TV &lt;사육신&gt;의 인물 연구

윤진현\*

## 〈차례〉

1. 머리말
2. 북한 조선중앙TV의 <사육신>이 있기까지
3. 인물 형상화의 특징
4. 맺음말

## 〈국문초록〉

2007년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제작하고 KBS에서 방영된 <사육신>은 최초의 남북한 TV 드라마 교류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북한 역사드라마의 사적 관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이 작품은 립종상의 <사육신>(원제 <삭풍>)을 원작으로 삼고 있으며 단종탄생에서 계유정난을 거쳐 병자원옥에 이르는 시기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박인서·김길중 극본, 장영복 연출의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사육신>은 립종상의 의도를 계승하여 우선 사육신의 개인적 고뇌와 갈등의 계기를 확대한다. 우선 성삼문의 경우, 교활하고 야비한 한명회의 거둬주는 악행으로 갈등이 증폭되니 그 핵심은 정몽주의 서손녀 정소연과의 삼각관계이다. 이는 다소 과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삼문의 결단의 이면에 단순히 대의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대립을 배치하여 그 인간적 면모를 강화하고 성격적 개연성을 확대한다. 이 같은 방식은 주로 긍정적인 인물군에 사용된 전략으로서 북한문학에서 인물 형상화에 한 형식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정소연과 그 주변의 인물들이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기생이 되는 정소연은 립종상 <사육신>의 조정심을 이어받았으면서도 한명회의외의 삼각관계로 재구성, 멜로 라인에서 산출되는 극적 긴장의 주역으로 활약한다. 서손녀라는 정소연의 한미한 신분은 가난하지만 인정 깊은 외가 식구 나길석, 곱단이로 이어지고 그들과의 인연에서 확장된 하천목, 무이 등의 기층민중은 한명회 도당을 오가면서 성삼문을 우직한 의리와 인정으로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순히 극적인 풍부함을 위해 창안된 인물이 아니라 <사육신>의 주제의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들 인물의 지원과 협력을 매개로 기층민중의 지지를 받는 사육신의 형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인하대학교 BK한국학과 박사후 연구원

그러나 세조정변에 대항하는 사육신의 충의는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인간적 정리와 맹목적 추종에 가깝다. 수양대군의 집권논리는 부정되지 못하며 따라서 수양대군이란 인물이 지니는 성격적 설득력 또한 상당하다. 이는 왕권 또는 절대권력에 대한 북한사회의 입장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한명회, 신숙주 등의 반동인물은 태생적으로 규정되며 이렇듯 단순하고 평면적인 인물 형상은 작품에 심각한 한계를 노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작품의 성취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주제어: 조선중앙TV, &lt;사육신&gt;, &lt;삭풍&gt;, 장영복, 김길중, 박인서, 립종상, 세조, 계유정난, 병자원옥

## 1. 머리말

2007년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제작하고 KBS에서 방영된 <사육신>은 최초의 남북한 TV 드라마 교류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방영 후 이미 3년여의 시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사육신>이 도달한 합작의 수준은 여전히 전무후무하며 북한 역사드라마의 특징과 사적 관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비록 한자리 시청률을 기록할 만큼 한국 시청자의 감각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 반향 또한 미미하였다고는 하나 이로써 그 의의가 일괄 폄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 시청자를 사로잡는 데는 완전히 실패하였다고는 하지만 작품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북한드라마 이해의 시금석으로 삼기에 부족할 것은 아니다.

북한 조선중앙TV의 <사육신>을 다룬 글은 많지 않다. 이 작품의 방영 전후로 신문 등에서 보여준 짧은 기사들과 전영선<sup>1)</sup> 윤진현의<sup>2)</sup> 단평이 있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남북문화교류정책과제개발연구」의<sup>3)</sup> 일환으로 이 작품에 대해 검토했을 뿐이다. 이들은 모두 작품 전반에 대한

1) 전영선, 「남북합작 드라마 <사육신>의 제작·방영 의미와 과제」, 『자유공론』, 2007. 9, 96~99면.

2) 윤진현, 「북에서 온 <사육신>」, 인천문화재단, 『플랫폼』 6호, 2007.10, 130~133면.

3) 박영정 외, 「남북문화교류정책과제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12.

연구라기보다는 최초의 남북한 합작 TV드라마라는 의의를 확인하고 이를 초석으로 삼아 남북한 문화교류가 이어져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미 잊혀져가고 있는 북한 조선중앙TV의 <사육신>의 제작경과를 살펴보고 특히 인물 형상화의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이 작품이 보여주는 북한 역사드라마의 특징과 그 한계의 일단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텍스트는 림종상의 <사육신>(이가서, 2006)과 <삭풍>(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KBS에서 2007년 8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24부작으로 방영된 박인서·김일중 극본, 장영복 연출의 <사육신>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이 작품은 해당 사이트에서<sup>4)</sup> 작품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큰 피아 닷컴에서<sup>5)</sup> 유료로 시청할 수 있다.

## 2. 북한 조선중앙TV의 <사육신>이 있기까지

### 1) ‘사육신’의 발견

사실 북한의 역사기술방법론에서는 ‘사육신’과 같은 지배계급의 충성심과 헌신성에 드러나는 역사적 사건이 의미있게 파악되지 않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과 완전 승리를 위한 시기”로 규정하고 이때부터 ‘전당 전인민의 주체사상화’를 강령으로 택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역사학계도 기존의 역사기술방향을 조정하여 ‘선조들의 슬기로운 역사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또한 주체시대의 역사는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조선전사』를 집

필,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1982년 총 35권을 완간했다. 그리고 『조선전사』의 성과에 기초하여 증보 개편된 『조선통사』가 1987년 출간되었다. 이 책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며 인류역사를 인민대중이 사회와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의 역사로 보고 역사발전의 추동력도 인민에게 있다고 규정한 주체사상의 역사원리를 역사적 사실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편술한 역사서”라는 평가를 받았다.<sup>6)</sup> 이 두 편의 북한 대표 역사서에 ‘사육신’에 대한 기술은 대단히 소략하다. 단종시기 대신관료들의 권한이 확대된 반면 어린 국왕의 전제권력이 약화되었으나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이 정권탈취를 반대하는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을 제거하고 리징옥의 반란을 진압했으며 왕위에 올라 성삼문, 박팽년 등 6명의 관료학자들을 비롯한 모든 반대세력을 무참하게 죽이거나 억누르고 전제적 권력을 강화하였다고 간단히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sup>7)</sup>

다만 15~16세기 문학을 다루면서 김종서의 시조 ‘삭풍은 나모 끝에 불고~’ 시조를 반침략애국투쟁주체의 대표적 작품으로 높이 평가하고<sup>8)</sup> 사육신의 시조를 고평화하면서 세조정변에 대한 견해를 추가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 시기 리조봉건사회의 모순을 반영한 시가들로서는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자리를 빼앗은 사건을 계기로 하여 창작된 성삼문의 ‘이몸이 죽어가서~’, 박팽년의 ‘가마귀 눈비 맞아~’, 유응부의 ‘간 밤에 부던 바람~’ 등의 시조들이 있다.

이때에 성삼문, 박팽년, 리개 등 ‘사육신’을 비롯한 많은 관료 문인들은 봉건적 충의사상에서 출발하여 수양대군의 행위를 비인간적인 처사로 규탄하고 그의 회유기만과 위협 앞에서도 단종을 지지하는 립장을 바꾸지

6) 성대경,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통일시론』 창간호, 1998.12, 255~256면 참조.

7)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8(중세편 리조사1)』,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36면.

8) 같은 책, 354면.

4) [http://www.kbs.co.kr/end\\_program/drama/sayugsin](http://www.kbs.co.kr/end_program/drama/sayugsin)

5) <http://www.conpia.com/tv/drama/index.php?gID=271805841>

않았으며 자기 작품들에서 이러한 사상감정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런 작품들은 물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유교의 봉건 리념에 기초하고 있으나 봉건위정자들의 부패상과 통치계급 내부의 알뜰을 보여주는 점에서는 일정한 긍정적 요소도 가지고 있었다.<sup>9)</sup>

이 같은 반세조적 평가는 크게 바뀌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다시 진지하게 주목받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조선통사』에는 이 같은 내용조차 생략되어 없었고 『금오신화』를 중심으로 생육신의 하나인 ‘김시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이 소설에서 작가는 리조의 왕인 세조를 비롯한 봉건위정자들의 횡포성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일반적인 언급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sup>10)</sup>

역사기술에서 변화의 조짐이 포착된 것은 『만화 조선의 력사·리조편 1』(조선출판물교류협회, 1998)에서이다. 만화의 형태라고는 하나 북한에서 역사 기술은 당국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만큼 가벼이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은 만화와 해설이 혼용된 학습판으로서 15~16세기의 기간을 총 18화로 나누어 설명, 묘사하고 있다.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1화 리씨조선왕조의 성립, 2화 한양으로의 수도 옮김, 3화 쓰시마 원정, 4화 국토의 완정, 5화 15세기 생산의 장성, 7화 봉건적 착취, 억압의 강화와 이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 8화 함경도 농민전쟁, 9화 자랑스러운 우리 글자 등 대체로 여타 역사서의 항목과 비슷한 내용으로 세분되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제6화로 ‘왕정 안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참변’이라는 『조선통사』에도 없는 항목에 첨가되어 있고 여기에 세조의 정변을 비판하며 사육신, 생육신의 저항을 비교적 자세하게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다.<sup>11)</sup>

이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면 북한에서 ‘사육신’을 소재로 삼은 역사소설이 등장하게 된 것 자체가 일정한 변화의 도정 위에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분단 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등장한 역사소설의 소재는 주로 전란, 민란 등으로서 흥경래의 난, 망이망소이의 난, 동학혁명 등 국내의 민중봉기와 을묘왜변, 임진왜란, 일제의 국권침탈과 민족해방운동 등 외적의 침입을 다룬 작품이 대세이며 전쟁 상황을 직접 다루지 않은 작품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제작과정을 다룬 강학태의 <김정호>, 고조선과 동예의 무친 행사를 다룬 립종상의 <부르나의 밤> 정도를 꼽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고구려의 건국을 다룬 김호성의 <주몽>(1997), 리성덕의 <담징>(1998), 립종상의 <삭풍>(2000) 등이 연이어 출간되니 북한 역사소설의 변모가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특히 <삭풍>의 작가 립종상은 북한 지식인 최고의 영예라는 ‘김일성상’을 수상하였고 일찍부터 조류학자 원병오·원홍구의 이산을 다룬 <쇠찌르레기>(살림터, 1993)가 소개되는 등 남북 문학교류의 선진을 담당한 작가이다.<sup>12)</sup> 본래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한 역사학자였지만 1981년 소설 <해돋이>를 집필한 것을 계기로 소설가로 전신, 주로 역사소설을 발표해왔다. 그의 작품 <삭풍>은 <사육신>으로 개제되어 남북한 저작권 대행을 위탁받은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에 의해 2006년 정식으로 이가서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 남북한 판본의 차이는 <삭풍> 첫머리에 수록된 문학예술종합출판사 편집부의 서문 「장편력사소설 《삭풍》에 대하여 가 생략된 정도이다. 여기에는 이 작품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창작된 작품임이 명시되어 있다.

9) 같은 책, 359면.

10) 손영중 외, 『조선통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399면.

11) 김병룡, 박승정 작·구성/그림 차형삼, 김명제, 『만화 조선의 력사·리조편1』, 평양: 조선출판물교류협회, 1998 참조.

12) 1983년 발표된 부르나의 밤 을 다룬 논문 등 립종상에 대한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임옥규, 「북한 역사소설의 고조선·고구려 형상화 연구-주몽>, <담징>, <부르나의 밤>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2007.5, 137~165면.

장편력사소설 《작풍》은 1452년부터 1456년까지 리왕조에서 벌어졌던 실재한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다.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나라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민족의 슬기가 깃든 문화유산을 잘 발굴하여 인민들에게 알려줄 데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앞으로 충신과 의리에 대한 력사 이야기를 발굴하여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많이 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창작하였다.<sup>13)</sup>

고전과 역사에 대한 이 같은 변화된 태도는 1992년 발간된 『김정일 주체문학론』(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이후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족문화예술유산을 주체적 립장에서 바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항목에서 역사의 문학적 해석에 대한 새로운 단초를 제시한다.

지난날의 민족문화예술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력사 주의적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문화예술유산계승에서 력사주의적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개개의 유산을 해당 시기의 사회력사적 조건과의 련관 속에서 공정하게 분석 평가하고 다룬다는 것을 말하며 현대성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시대적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풀어나간다는 것을 말한다.<sup>14)</sup>

‘해당 시기의 사회력사적 조건과의 연관 속에서 공정하게 분석 평가하고 다룬다’는 언술에서 봉건지배계급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 유용한 사건을 다루고 이로부터 현대의 시대적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방향으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현대성 견지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주로 고전 작품의 계승에 대한 원칙이지만 과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역사’ 또는 ‘사회(史話)’를 재평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sup>15)</sup>

굽히지 않은 충절과 의리는 현재의 북한사회에서 요구되는 바이며 따라서 ‘충신과 의리에 대한 력사 이야기’를 발굴한다면 첫손에 ‘사육신’을 꼽는 것도 자연스럽다. 북한에서 ‘사육신’을 다룬 작품은 림종상이 처음이었다. 단종탄생(1441)에서 계유정난(1453)을 거쳐 병자원옥(1456)에 이르는 세조정변의 핵심사건을 대상으로 사육신 중 성삼문을 중심으로 당대 현실을 다룬 3인칭 시점의 소설이다.

림종상의 <작풍>(2000)을 다룬 논문은 임옥규의 저서에 할애된 한 소절이 있을 뿐인데 임옥규는 이를 1990년대 이후의 ‘선군혁명론’에 기반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sup>16)</sup> 선군혁명론이란 1990년대 이후의 세계정세를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의 몰락과 냉전의 해소가 다극화가 아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화로 규정하면서 ‘악의 축’ 등 부시정권의 대북한 공세를 시작으로, 북한에 대해 적극적 공격이 이어졌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철저한 ‘군대우선(先軍)’ 또는 ‘군대와 같은 투쟁형식의 우선’ 전략을 의미한다.<sup>17)</sup> <작풍>이 ‘선군혁명론’에 기반했다는 평가는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이상적인 무신(武臣)의 형상에 착안한 것이겠지만 ‘사육신’의 거사가 결국은 불발되었으며 무신보다는 문신

15) 리현길 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146~147면.

16) 임옥규, 「충과 동지적 의리의 인물형상-『작풍』, 『북한역사소설의 재인식』, 역락, 2008, 195~200면 참조.

17) 전덕성,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 평양: 평양출판사, 2004 참조.

13) 편집부, 장편력사소설 《작풍》에 대하여,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3면.

14) 김정일,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73~74면.

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다소 결을 달리한다. 오히려 ‘반봉건적 계급투쟁과 관련된 제반 역사적 사건’을 선호하는 북한의 역사소설 경향으로 볼 때, 소재 선택에 있어 사육신은 봉건지배층의 추악한 권력투쟁과 그 속에서 순진하게 희생된 한 집단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변하는 충의에 대한 경의와 각성으로 볼 수 있는바, 북한 사회의 균열을 봉합하고 북한 지배층에 대한 충성을 강제하는 데는 일정한 효용이 인정된 듯하다.

다만 그 한계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 립종상의 소설 <삭풍>에는 이에 대한 경계 또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

선왕들의 간곡한 고명을 지켜 신념과 지조를 목숨 바쳐 지켜낸 ‘사육신’의 의로운 행동은 한번 다진 맹세를 저버리지 않은 신하로서 훌륭한 것이었으나 그것은 철저한 봉건 충군 사상에 기초하였으므로 역사적, 계급적 제한성을 안고 있었다.

이는 바와 같이 봉건충군사상은 전통적으로 강요되어온 유교도덕관념에 기초하여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들이 지녔던 충군사상은 역사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진보적이기보다는 거의 맹목적이었으며 유교도덕률리관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그들 모두가 양반통치계급에 속하였던 것만큼 다만 봉건적 의리를 지켜 단종의 복위만을 바랐을 뿐 정변을 통하여 백성들에 대한 선정을 베풀어보자고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소행이 그 나름으로 의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정통왕을 이어놓자는 데 머물렀을 뿐이다.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역사적 계급적 제한성이 있는 것이다.

일련의 제한성이 있음에도 봉건충의를 지조와 의리, 죽음으로 지켜낸 그들을 력사는 높이 평가해왔다.

...(중략)...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모함, 모해, 파쟁의 해독성과 반동성을 리해하려면 리조 500년사만 돌이켜보아도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권력을 위해서라면 부모자식사이, 형제 사이에서도 칼부림을 하는 것이 바로 반동화된 인간들의 본성이며 종파의 악습이라고 밝히시었다.

통치배들이 벌린 골육상전은 그가 비록 부자간,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적이려면 기어코 물어메치고야마는 류혈전이였으므로 봉건률리에서 조차 심히 어긋날 뿐 아니라 추악한 인간들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비인간적인 처사였다. 부자, 형제 사이의 혈연적 관계도 의리도 정권쟁탈전의 희생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런 정변이 그 어떤 사회적 변혁이나 력사발전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는 여기에 권력쟁탈을 위한 궁정비사의 반동적 본질이 있는 것이다.<sup>18)</sup>

이 같은 지적과 같이 소설 속의 ‘사육신’ 또한 반봉건계급투쟁의 전사도 아니고, 위대한 영웅으로 그려지지도 않는다. 성삼문은 충성스럽고 순직하기는 하나 애민관은 아니다. 예를 들면 작품 내에서 단종이 즉위한 후, 토목공사를 전담하는 ‘방패’라는 군대의 고역을 경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그 천민놈들이 부역에서 그만한 고생쯤 겪는 거야 여반장일 터인즉’ ‘아주 싹 잘라버릴 생각’이라는 단종의 말에 ‘과시 현명한 생각’이라 맞장구치는 성삼문의 조언은 당대 양반계층과 성삼문의 역사적 위치를 규정하는 작가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최근 한국 역사물에서 빈번히 구사되는, 백성을 타자로 두고 그들에게 공물을 베푸는 지배층의 애민정신은 도금한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왕조시대의 한 신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조 높은 성삼문조차 왕의 충신이고, 왕에게 충성할 뿐, 권력의 원천지인 백성을 실물로 감각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역사학자 립종상은 이 지점에서 한국 역사물의 추상적 경향을 간단히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립종상의 <삭풍>은 한국에서 다뤄온 형식과

18) 편집부, 장편력사소설 《삭풍》에 대하여, 립종상, 앞의 책, 3~5면.

는 다소 다르다. 근대 이래로 ‘단종’과 ‘세조’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작품들은 재해석을 통해 일종의 정치적 역학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주체는 주로 권력의 주체인 단종과 세조, 또는 권력을 행사하는 한명회, 김종서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육신’은 극히 일부를 차지할 뿐이니 보통 사육신의 역할은 강직하되 단순하고 아름답되 미숙한 데 그친다. 이들을 다성적인 인물로 재축조하고자 하는 문학적 시도조차 기이하게도 전무한 판이다.<sup>19)</sup>

그러나 립종상의 작품은 철저하게 성삼문과 그 주변의 학사들을 중심에 두고 있다. 특히 성삼문을 중심으로 기생 조정심과의 연정관계, 큰딸 갓난애와 신숙주의 아들 신정의 사랑, 다섯 살 난 막내딸에 대한 부성애 등을 보강하여 성삼문의 인간적 면모를 크게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충의의 결단에 부수된 인간적 고뇌와 희생의 실상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기생 조정심과의 관계이다. 마치 김유신과 천관녀를 연상케 하듯 성삼문이 타고 다니는 하늘소는 일부러 몰지 않아도 조정심의 집에 이르고 본래 양반 출신이던 조정심은 예기(藝妓)다운 품위를 지키면서 은근하게 정을 표현한다. 이들의 플라토닉한 애정관계는 형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지막 술을 올리는 조정심이 역시 집안을 대표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올리는 어린 딸을 데리고 위난을 피하여 충절의 핏줄을 이어가게 한다는 설정으로 종결된다.<sup>20)</sup>

즉 계유정난에서 병자원옥에 이르는 봉건사회의 추악한 권력쟁탈전에서 가장 순수한 인물을 포착하여 이들의 충의를 재현함으로써 북한 역사소설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덕분에 남

19) 사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은 유치진의 <사육신> 정도인데 이 작품의 주된 사건은 성삼문이 아들 성삼문을 시험하는 데 있을 뿐이어서 사육신의 세조암살기도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데는 거리가 있다.

20) 유자미(柳自澗)는 문종 때의 문신이다. 성삼문이 처형되자 그의 아들 성맹년의 어린 딸을 데려다 길러 며느리를 삼았다. 조정심과 탈출하는 어린 딸의 일화는 이로부터 구상된 듯하다.

북간의 역사관의 격차를 넘어서 ‘충의’에 대한 일종의 ‘공감지대’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도 할 것이다. 이점에서 남북합작드라마의 원작으로는 분명 수월한 지점이 있었다.<sup>21)</sup> 그러나 TV드라마에서 이 같은 인물형상은 한계가 명백하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중앙TV의 드라마 <사육신>은 립종상의 형상을 이었으며 완전히 새로운 텍스트이기도 하였다.

## 2) TV드라마의 제작

2005년 1월 21일 개성에서 만난 남북교류협력팀은 남북합작드라마의 공동제작에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사육신> 제작을 위한 ‘남북합의서’를 교환했다. KBS가 제작비와 기술력, 방송장비를 제공하고 제작은 모두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맡는다는 내용이었다. KBS는 <사육신> 제작을 위해 총 21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다. 이 가운데 70만 달러가 현금이었으며 140만 달러는 방송 장비였다. 또 카메라 기술, 조명, 세트, 의상, 분장, 디지털 오디오 편집 기술 등 각종 방송 기술을 북측에 전수했다. <사육신>은 북한의 첫 디지털방식 제작드라마이며 최초의 동시녹음 제작드라마이기도 하다. 연출은 <임꺽정>을 만든 장영복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연출가(인민예술가)가 맡았고 대본은 TV극창작단의 박인서, 김일중 작가가 담당했다. 총 170여명이 출연하는 가운데 ‘성삼문’ 역은 북한 최고의 인기배우 박성욱, ‘세조’ 역에는 최봉식이 캐스팅됐고 성삼문과 애뜻한 사랑을 나눌 가상인물 ‘정소연’ 역에는 김련화가 출연하였다. 가상인물인 김종서의 수양딸 ‘솔매’ 역은 휴대전화 CF 등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던 북한 무용수 조명애가 맡았다.

양측은 2005년 4월 18일부터 26일에 걸쳐 중국 베이징에서 최종 수정과

21) 이에 대해 전영선은 ‘사육신’이 남북합작 TV드라마의 소재로 선택된 것을 ‘사육신’의 주제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전영선, 앞의 글, 97면.

정을 거쳐 대본에 대해 합의했고 KBS는 북한 조선중앙TV를 방문하여 협약내용대로 분장, 소품, 의상 등 방송기술을 전수했으며 7월 28일 조선중앙TV 스튜디오 촬영분으로 제작을 개시하여 2006년 9월말까지 촬영을 완료하였다. 궁궐 야외 장면은 개성의 고려박물관에서 촬영되었으며 몽골의 사막, 개성의 박연폭포, 마천령 산맥의 광활한 산자락 등이 야외촬영의 배경이 되었고 연인원 1만여명, 300여필의 말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2006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방영 시기는 북한 핵실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방송날짜를 잡지 못하고 지연되다가 결국 해를 넘겨 2007년 8월에서야 겨우 방송되었다.<sup>22)</sup>

남북합작드라마의 제작에 합의한 후 처음 진행된 것은 대본을 만드는 일이었다. 림종상의 소설 자체는 성삼문의 인간적 면모를 그려내는 데 집중되어 있어 극적 사건이 취약하다. 따라서 조선의 정사를 담은 『조선왕조실록』과 『연려실기술』, 북한의 야사기록을 참고하여 김길중과 박인서 공동의 1차 대본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완성된 대본은 처음에는 총 50부작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4부로 축소되었다.

두 번의 대본 수정이 있는 후 2005년 4월 남북의 제작팀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직접 만났다. 대본을 마무리 짓는 최종 회의를 갖기 위해서였다. 연출가와 작가로 이루어진 양측의 제작팀은 9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수정작업을 진행했다. 북한의 길은 사상성을 희석시키고 분량을 줄여 작품의 밀도를 높이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sup>23)</sup>

처음 50부로 씌어진 대본을 반으로 줄이고 이에 대해 다시 수정을 가하는 데 있어 그 목표가 사상성의 희석과 분량 축소에 있었다면 KBS 제

22) 이상은 <사육신> 방영에 앞서 8월 2일 KBS에서 방영된 “사육신 스페셜”과 KBS의 보도자료 등에 기초하였다.

23) <사육신 스페셜>, KBS, 2007.8.2.

작팀과 함께 한 수정과정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극작술의 제안이었다기 보다는 대체로 대본내용을 삭제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문인지 <사육신>은 편당 1시간 2분에서 5분 가량의 방영시간을 갖고 있으나 중복내용이 적지 않다. 24부로 만들어진 대본 내에서 사상적인 내용을 다시 삭제하는 데서 줄어든 시간을 이 같은 방식으로 보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완성된 형태로 수입, 또는 수출되는 여타 국가와의 드라마 교류와는 달리 남북한 드라마 교류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제한이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시청자 또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검열의 시선은 피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북한의 연출가에게 보장되는 전면적인 제작 겸 감독의 위상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작품은 작가 및 연출가의 완전한 의도대로 만들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작품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에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점이다.

이 작품을 연출한 장영복은 영화 5부작 <림격정>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으로서 그의 작업은 북한의 영화제작론에 공적으로 깊이 연루되어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TV드라마는 예술영화촬영소에서 영화에 종사하는 인원이 거의 그대로 투입되어 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sup>24)</sup> 그렇다면 TV드라마 <사육신>의 제작에 있어서도 이들의 ‘영화예술론’이 적용되었다고 보아야한다.

영화에 대한 김정일의 각별한 지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김정일은 이미 1973년 『영화예술론』을 발표하여 영화제작의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생활과 문학(영화문학론) ②영화와 연출(연출론) ③성격과 배우(배우론) ④영상과 촬영(촬영론) ⑤화면과 미술(영화미술론) ⑥장면과 음악(영화음악론) ⑦예술과 창작(창작방법론) ⑧창작과 지도(창작지도론)이다.<sup>25)</sup>

24) 전영선·이명자, 『북한영화 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영화진흥위원회, 2007, 7면.

대본의 주제 및 구성론에 해당하는 ‘생활과 문학’은 대략 문학은 인간 학이며, 주제는 정치적 의의가 있을 것, 혁명적 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 있게 그릴 것, 갈등을 계급투쟁의 법칙에 맞게 그릴 것, 매 장면이 극이 있을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한국의 시청자를 고려한 KBS의 주의 깊은 삭제요청을 통하여 상당부분 제거되었으리라 짐작되지만 그렇다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드라마 <사육신>은 그 기본적인 골격을 기록적 역사물에 의거하여 사실성 높게 구축하였다. 그러나 작품 말미에 이르러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을 재구성하면서 시기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계유년(1453년)의 성문치·조유례의 정인지와 수양대군 습격사건, 정축년(1457) 금성대군의 단종복위 사건을 연계하여 병자년(1456년)의 사육신의 세조 암살 및 단종 복위 시도를 향하는 중간단계로 조정하였다. 이는 타락한 위정자와 순직한 신하 및 민중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적절하게 만들어주며 매 장면에서 ‘극’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데도 유용하였다. 특히 순직하고 낙천적인 성삼문이 충성의 방식을 배우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면서 점차 더욱 굳은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인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곧 혁명적 세계관의 정립과정인 것은 아니지만 인물의 전형적 발전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해의 계기를 제공한다. 더구나 성삼문은 다음 장에서 기술할 바람직한 인물의 요건이 전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에 김정일의 『영화예술론』이란 지침은 심층차원에 관철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또하나 중요한 영역은 ‘성격과 배우’라고 할 수 있다. 배우는 주어진 배역인물을 형상화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시대와 생활을 더욱 깊이 인식시키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 개조하는데 이바지하

는 예술가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물의 세계를 깊이 파고 들어가 성격을 옹골 분석 파악한 기초 위에서 그의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왕실과 긍정적인 의미의 양반지배계층을 영화 또는 드라마에서 다룬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연출 장영복은 물론, 성삼문 배역의 박성욱 또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얼핏 낯설게 보이는 배경과 인물들의 연기방식 등이 일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면 관점을 달리하는 문제의식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또한 ‘화면과 미술’ 영역에서 강조되는 사실성을 위해서 다양한 역사적 고증을 실시했으며 여기에는 KBS제작팀의 자문도 일조하였다. 북한의 경우, 조선왕실을 배경으로 하는 본격적인 사극을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국의 드라마 제작진 및 시청자가 갖고 있는 궁중생활 등 왕조시대의 표현상이 합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얼핏 보면 궁중사극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던 1960~1970년대 사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실제보다 훨씬 화려해진 한국의 사극 의상 등과 비교할 때, 오히려 조선시대에 가까운 면도 없지 않았다. 물론 자잘한 보조연기에서는 다소 황당한 경우도 없지 않으니 예를 들면 동저고리 바람으로 수양 곁에 앉아 계교를 짜내는 한명회는 한손으로 연신 호두를 굴리며 소리를 내고 있고 종실의 대군이 라고는 하나 삼한갑족의 일원인 박중립의 여식을 육레도 없이 첩실로 데려가며 반가의 자식인 신숙주의 아들 신정과 성삼문의 딸 아경은 담을 넘나들며 사랑을 속삭인다. 물론 이 또한 최근 한국의 사극이 보여주는 자유로운 연기와 표현을 생각할 때 익숙함과 낯섦의 차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촬영영역이다. 『영화예술론』에서는 ‘촬영에서는 화면의 조형성을 살리면서도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써 다 드러낼 수 없는 심오한 뜻과 독특한 정서를 섬세하게 그려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활의 흐름에 맞게 화면을 길게 찍으면서 촬영기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화

25) 이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설명은 다음 글에서 참조할 수 있다.

이효인 외, 『통일 한국인이 보아야 할 북한영화 50선』, 영화진흥위원회, 2002, 17~39면.



면내부의 편집을 잘하여 감정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특히 광폭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 같은 촬영 미학을 감안하면 현란한 그래픽이나 화려한 카메라 기술 없이 만들어내는 장려한 전투씬 등이 대규모이면서도 소박하여 새로운 미감을 생산하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삼문과 신숙주가 한글창제를 위해 중국의 학자 황찬을 찾아가는 제 7회의 장려한 내몽골의 사막풍경은 한국의 드라마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것이었고 17회에서 룡삿을 사용하여 마천령 들관 드넓은 지역에서, 300여 마리의 말이 달리는 가운데 벌어지는 홍윤성과 이징옥의 한 판 전투는 제작진 특유의 장면이었다. 한국의 사극에서 대규모 전투씬은 <태조 왕건>과 <불멸의 이순신>에서 결정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전투규모를 보다 크게 보이게 하려 위하여 주로 야간을 배경으로 하였고 짧게 컷하는 편집기술을 채택하여 역동성과 박진감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육신>에서처럼 곧이곧대로 솔직하게 파노라마로 보여주는 경우는 경험적으로 대단히 드물다. 만약 같은 장면을 한국 드라마제작진이 사용했다면 훨씬 기교적인 장면이 탄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촬영기술에 있어 예술제일주의와 기술실무주의를 배격하고 있으니 이것이 곧 기교적 장면 자체에 대한 거부와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적이고 산술적인 촬영방식을 고수하는 데서 일종의 제작역량에 대한 과시욕 또한 오롯하게 포착된다고 하겠다.

즉 조선중앙TV의 드라마 <사육신>은 KBS의 주문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점 때문에 제작자의 요구에 따라 짙은 사상성은 대거 삭제되었다고 하나 여타의 요소를 살펴보면 북한의 '영화예술론'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물의 형상화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 3. 인물 형상화의 특징

#### 1) 긍정적 인물의 성장 과정과 한계

이 작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이라면 극단성이다. 모든 인물은 분명한 선악의 경계를 지니며 그 시비(是非)는 태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요컨대 모든 인물은 평면적이고 단성적이다. 게다가 상명하복의 행동패턴, 변명이나 항변을 하지 못하는 약자, 그로써 생기는 갈등의 부실 등 신파적 표현요소가 무작정 착한 인물의 유치함을 강화시키고 있다.<sup>26)</sup> 물론 이 같은 인물의 단순성은 이념의 제거 과정에서 더욱 증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어도 여전히 상투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 같은 인물에도 형상화 원칙이 있다.

앞서 '충신과 의리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다룬다면 '사육신'의 사례가 이에 적절하다는 사실을 지적했거니와 '사육신'을 소재로 택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성삼문'을 주인공으로 선택한 과정 또한 매우 자연스럽다. 사육신의 첫 번째 인물로 성삼문이 꼽히는 것은 관행이려니와 이 작품이 곧 '신군혁명론'에 기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현재 북한 사회의 '군대우선' 문화를 상기할 때 성삼문은 무신의 집안에서 태어나 문과에 급제하였기에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무신의 모델을 매개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작가 김일중은 성삼문의 성격 자체를 호방하고 굳센 무신적 성격으로 해석한다.

김일중 : 성삼문의 절명시에 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삼문

www.kci.g  
26) 이영미, 「윤진현 '북한조선중앙TV <사육신>의 인물연구'에 대한 질의문」, 한국극예술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 2010.5.15, 2면.

의 절명시를 보면 아주 호방하면서도 웅건하고 굳센 성삼문의 성격과 인간적인 체취가 풍겨온단 말이에요. 죽으면서도 절개를 지킨 이 성삼문이를 주인공으로 하면은 우리 북이나 남이나 우리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공감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sup>27)</sup>

이렇게 선택된 성삼문의 구체적인 성격은 어떠할 것인가? ‘이몸이 죽어가서~ 백설이 만견곤할 제 독야청청하리라’고 노래한 그의 시조는 확실히 강인한 기백을 확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영화예술론’에 의하면 주인공의 성격은 관객의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의지가 굳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화의 주인공은 쾌활하고 낙천적이며 난관 앞에 굴할 줄 모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전형적인 새 인간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천대받고 압박받던 사람이 끊임없는 노력과 수양으로 헌신적 로동의 시련을 거쳐 마침내 성공하고야마는 그런 생활과정을 잘 그려야 한다.<sup>28)</sup>

이 작품에서 성삼문은 바로 이 쾌활하고 낙천적이며 난관 앞에 굴할 줄 모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로 충만한 인물이다. 수양대군의 검검한 야욕을 일찍부터 눈치채는 약삭빠른 정인지와 달리 수양의 지략과 배포와 용력을 존경하는 성삼문은 순직한 제 마음만 믿고 수양대군을 조심하라는 조언에도 그럴 리 없다고 믿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18회에서 성삼문은 수양대군을 비판하는 익명서를 쓰되 자신의 손은 더러운 것을 만져본 적이 없다며 발가락 사이에 붓을 끼워 하인 구복의 부축을 받아가

27) <사육신 스페셜>, KBS, 2007.8.2.

28) 김정일, 『저작집』 2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575면; 전명선·이명자, 앞의 글, 10면에서 재인용.

면서 춤을 추듯 흥겹게 쓴다. 구복은 함께 신이 나서 써놓기만 한다면 자신이 얼마든지 갖다 붙이겠다며 성삼문을 격려해준다. 나날이 수양대군의 기세가 높아가는 중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익명서를 쓰면서 할 일을 찾아낸다. 또한 성삼문은 충절가문에 대한 예의 때문에 포은 정몽주의 서손녀인 정소연을 사랑하고 그녀가 자신을 연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첩으로는 삼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 신하가 생명이 나면 임금의 병이 낫는다는 속설을 믿고 옷도 없이 빗속에 통곡하여 병이 들기도 하며 신숙주와 함께 간 몽골행에서 신숙주가 병이 나자 단지(斷指)하여 피를 흘려넣어 신숙주를 살릴 만큼 지성스럽기도 하다. 나길석이나 하천목과 같은 하층민에게도 예의와 성의를 다하여 이들의 지극한 지지를 얻어낸다. 림종상의 소설에 그려졌던 봉건지배계급 일원으로서 지니는 한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 소설 속의 인물이 드라마로 재편되면서 조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삼문의 주변에는 마찬가지로 끝없이 선하고 반듯하며 의리있고 인정미 넘치는 긍정적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의 충의는 추호의 의심이나 추호의 갈등도 겪지 않는다. 김종서는 자신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독소골 촌장의 딸을 감화시켜 수양딸을 삼고 자신을 염탐하려 찾아온 홍윤성에게 배포 크게 술을 대접한다. ‘분경금지(奔競禁止)’를 주도한 대제학 기건이나 ‘술백관계(率百官陪)’를 거부하는 허후 등은 젊은 학사들의 정의에 감복하며 자진하여 희생을 감수하는 도량과 충절을 보여준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옹부, 이징옥 등 무장들은 오랜 연륜과 전장에서 다져진 신의를 기반으로 한결같이 성삼문 등을 지원한다. 이들 또한 소설 속에서 포착되는 자만이나 어리석음은 사라졌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성삼문은 일관된 신의와 선의 속에서도, 즉 선악과 시비의 갈등 없이도 극의 전개에 따라 변화하는 독특한 성격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삼문은 낙천적이고 쾌활하되 처음에는 단순하고 다소는 어리석다. 이 같은 단순성은 정치적 입장에서도 잘

드러난다. 세종의 내불당 건립을 반대하다가 파직에 이르며 그 같은 원리원칙의 관철이 역으로 군왕의 외로운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불충일 수도 있다는 역설적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이는 정소연의 정절에 대한 경솔하고 편협한 판단에서도 거듭 반복된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는 아버지, 스승, 친구 등의 조언으로 변화한다. 수양대군의 본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고 신중한 관찰을 통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의견을 조정해간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인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무장들에게서 배우는 맹목적 충의는 이 작품의 주제 그 자체이다. 어쩌면 이 맹목적 충의의 원형은 북한사회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고도 하겠다.

1448년 세종 30년 내불당 건설을 두고 조정에는 격론이 벌어진다. 작중에서 성삼문은 그 반대파의 선봉이다.

성삼문 : 송유척불은 선왕대로부터 지켜온 나라의 국법이옵니다. 대군께서는 정녕 이를 모르신단 말씀이시옵니까? 어쩌하여 대군께서는 국법을 어기도록 임금님을 부추기고 계시옵니까? 대군마마, 유교는 성상께서 친히 내세우신 국교요, 이 나라 유생들이 지점으로 따르는 학설이옵니다. 성상께서 자신이 세우신 국법을 어기시고 대궐 안에 불당을 지으신다 함은 어불성설이옵니다.

이때까지 성삼문에게 ‘충의’는 ‘억불송유’와 같은 국가기조를 사수하는 것이었다. 신하의 도리를 규정하는 ‘보필(輔弼)’이란 단순한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보(輔)는 길을 이끄는 것이요 필(弼)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으로서 이는 왕이 자신이 세운 법을 지키며 올바른 정사를 펴고, 잘못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제왕은 수치가 없다는 제왕무치(帝王無恥)는 왕의 오류가 필(弼)을 수행하지 못한 신하의 잘못이라는 점을 전제로 가능했다. 따라서 이 보필의 극한은 폐위까지도 고려되는 것이었으니 조선 건국을 예찬하고 국가의 장래를 송축한 조선의 대표적 악장 <용비

어천가>의 맨 끝장인 125장 계왕훈(戒王訓)의 절정에는 성신(聖神)이 있었어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해야만 왕업이 굳을 것이라는 경계와 함께 개국조상들이 아무리 튼튼한 기반을 닦았다 하더라도 왕으로서 잘못하면 폐위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라 태강왕의 고사로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왕조에서 발생한 두 번의 반정은 바로 이 같은 가능성을 열어두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성삼문은 이 같은 신하의 도리를 지키고 정의를 관철하는 것으로 자신의 충의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삼문의 입장은 아버지 성승과 무장 유응부의 질책으로 반성하고 변화한다.

성승 :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는 정으로 통해야 한다. 임금께서는 너를 정으로 사랑하셨다. 하다면 신하된 너도 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게 아니냐. (...) 흠, 그 심려 덜어드릴 신하가 없어 잠시라도 부처에게 심신을 의지하시려던 것인데 망령된 선비 나부랭이들이 쫓고 허비니 이놈아, 좋은 일에 만세를 부르는 자가 충신이 아니라 임금님의 심경을 헤아리는 자가 충신일진대... 허!

유응부 : 옳은 말씀이요. 부자간에 정이 있듯이 군신간에도 정이 있어야 하는 게요. 이보게 근보, 다른 일에는 용화를 돌지 모르겠지만 주상 전하를 받드는 일에서는 용화가 있을 수 없네. 우리 무장들은 일단 상감님을 받들었으면 **외로든 바로든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위치밖에 모르네. 어허 참, 선비들의 마음 갈래가 많더냐...

(5회, 강조필자)

성승과 유응부의 논리에서 충성의 대상인 국왕은 국가라는 공적 실체라기보다 자연인 ‘세종’에 가깝다. 즉 국법이나 이념이 아니라 ‘상감’이라는 실체가 충성의 대상으로 재조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확대되면 단종 또한 일종의 정통성이나 국체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 단종 자체로 규정된다. 즉 왕은 역할이나 능력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왕 자

체로 규정되며 선왕의 고명을 받아 왕위에 오른 단종은 왕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적인 충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성삼문은 ‘일단 상감을 받들면 외로든, 바로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무장성승과 유응부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논리적 설명보다는 질문 없는 절대적 충성과 인간 사이의 감정적 정의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그리고 이 같은 감정적 충성영역으로 한 번 진입한 후에는 재고되거나 의심하는 일 없이 일관한다.

그러나 병자원옥의 논리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절대왕권을 향해서도 굽히지 않던 ‘사육신’ 등 단종복위파의 합리적 비판의 핵심은 유교적 원리에 입각해 있었다. 조선 사회의 상식이었던 오륜을 음미해보자.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 장유(長幼), 붕우(朋友)는 사회를 이루는 기초로서 특히 군신과 부자는 동격이었고 이들의 관계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하관계로 규정되지만 일종의 순리(順理)로 지지되는 것으로서 순리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자신의 조카요 또 섬겨야 할 군주였던 단종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한 세조는 가족간의 윤리와 군신간의 의리를 동일시했던 당시의 유교적인 윤리관으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었다.<sup>29)</sup> 과실없는 군주를 폐위하고 왕위를 찬탈한 점에서도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원칙에 위배되었고 세계(世系)를 거슬러 조카를 몰아내고 삼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곧 역행(逆行)이었으니 상하의 이치를 거스른 것이었다. 이 원칙은 조선 왕조의 왕통 계승에서 결코 부정된 적이 없었다. 왕이 후사가 없으면 왕의 다음 항렬에서 후보를 찾았고 왕이 폐위되었을 때도 왕의 동생이나 조카항렬에서 새 왕을 추대했다.

사실 수양의 부왕 세종이 1448년(세종 30년) 원손 흥위를 왕세손으로 책봉하였으니 세자 향에서 원손 흥위로 이어지는 왕통의 계보는 이미 확

정지어져 있었다. 수양대군이 외견상이나마 무난히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세손이 있는 한 이미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왕세손 유고시에는 왕세손과 같은 항렬, 즉 수양대군의 자녀 항렬에서 후보를 찾는 것이 예법에 합당한 것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퇴위하는 왕의 윗항렬에서 다음 왕이 즉위한 것은 조선왕조사상 세조의 경우가 유일하였다. 그럼에도 세조의 등극이 강행되었으니 당시의 윤리 감각으로 자연스러운 선위라고는 설명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만큼 무리수를 둔 정변이었으므로 그 후유증과 저항도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 장릉에 배향된 인물로 추산할 때, 세조는 결국 친동생 2명을 포함, 300여명을 살육하며 왕위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요한 논리적 근거는 성삼문의 입장 속에서 확산되기보다 인정과 맹목으로 오히려 흡수되어 가고 있으니 이는 역사해석 상의 후퇴라 해도 과하지 않다. 그리고 그 같은 후퇴는 목적 없이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 2) 제왕 영역의 절대성

이 작품에서 가장 안정적인 배역을 꼽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세조 수양대군이다. 수양대군 역의 최봉식은 유동근, 임동진, 서인석 등 세조역으로 이름 높았던 한국의 중견 연기자들 못지않게 중후한 카리스마를 뽐내며 세조를 연기하였다.

비록 반동인물이지만 세조라는 인물은 첫회부터 세심하게 안배된 사건과 성격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축된다. 이 작품의 첫회 첫장면은 병자년 국문장이다. 성삼문은 세조의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다. 장면은 전환되어 옥사, 신숙주의 안내를 받아 정소연이 옥사에 들어선다. 이 장면은 최종회와 이어진다. 다시 국문장, 세조를 나으리라 호칭하는 성삼문에게 한명회는 ‘성상은 너를 살리려 하지만 그건 안돼, 넌 내 손에 죽어

29) 정두희, 단종과 세조에 대한 역사소설의 검토, 『역사비평』 18호, 1996.2. 96면.

야 할 놈'이라며 입을 부숴버리라 호령하지만 세조는 '멈추라' 명령하고 성삼문을 아까운 인재라 안타까워한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정치적 함의는 명료하다. 사육신을 죽이는 것은 한명회이며 세조는 끝까지 성삼문을 살리고 싶어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어진 장면은 단종이 태어나는 1441년이다. 남해포구, 왜구를 격퇴하는 수양대군의 활약과 단종을 출산하는 현덕빈 권씨의 산고 장면이 교차된다. 원손이 탄생하고 수양대군은 승전한다. 특히 왜구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먼 왜선에 실린 조선수군의 훈련용 과녁이던 일본옷을 두고 일왕에게 알리면 조선과 국제관계가 나빠질 것이라 왜장이 협박하자 수양은 불붙인 화살로 이 옷을 쏘아 불태워 없애버린다. 그 카리스마와 탁월한 결단력, 출중한 무예는 수양의 그릇과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이중적이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기뻐하는 성삼문과 경계하며 두려워하는 정인지의 시선이 교차되면서 미묘한 감정 차이를 야기한다. 이어 원손의 탄생 소식을 접한 수양의 표정 또한 미세하게 흔들린다. 보교가 느리다고 말을 찾아 앞서 달리다가 드넓은 바닷가, 말에서 내려 수평선을 바라보는 수양대군의 어두운 안색과 불안정한 눈빛은 수양대군의 야심과 현실을 포착한다.

이 같은 상황의 배경이 되는 것은 1441년 원손 홍위의 출생과 1443년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의 도제조로 제수되었던 상황, 1444년 초무관 강권선이 왜적 몇 명을 체포하고 그 처분을 물으니 세종이 수양대군, 도승지 이승손, 우승지 유의손, 좌부승지 황수신 등에게 명하여 병조판서 정연, 우의정 신개와 이들을 중국으로 압송하는 것이 어떠할지 의논케 하였던 상황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것이다.

전제상정소는 토지 조세 제도(租稅制度)의 연구 조사와 신법(新法)의 제정을 위하여 두었던 관청으로 1443년 세종 25년에 설치되었고 첫 도제조로 수양대군(당시에는 진양대군)을, 의정부 좌찬성 하연, 호조판서 박종우, 지중추원사 정인지를 제조로 삼았었다. 그러나 1444년 수양대군은 수

기색(壽器色) 제조가 되었으니 전제상정소의 직책을 오래 맡지는 않았던 것 같다. 새로 설치하는 전제상정소에 수양대군을 도제조로 임명한 것은 새 관청에 대한 왕의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 같다. 세종은 세자는 물론 수양과 안평, 광평, 임영 등 장성한 아들들에게 자주 조정의 일을 맡겼으며 이를 통해 왕실의 위엄을 세우고 왕자들의 충성심을 관리하였다. 수기색 또한 왕실의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관청으로서 역시 왕실의 의전에 대한 국왕의 관심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같은 역사사실의 재조합을 통하여 수양대군의 능력과 야심을 충분히 보여줌으로써 이 작품이 지닌 수양대군에 대한 이중적 잣대가 전면화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소헌왕후가 수양을 총애하여 부왕 세종의 뜻이 수양에게 있음을 던지시 암시하기도 하고 세자가 병약하여 세손의 앞날이 어찌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공공연하게 노출되기도 하니 그 같은 언급들이 있었다면 당대 문화에서는 대역죄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는 당시 상황이 불안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지만 한편으로는 그 같은 불안한 상황에 필연적으로 출연하는 새로운 영웅과 권력에 대한 기대로도 작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권력에 대한 수양대군의 입장은 어떠한 것이던가? 13회 명나라에 단종의 즉위에 대한 사례사로 파견된 수양대군은 영락제에 건주어 자신의 야심과 포부를 노출한다.

수 양 : 영락황제는 어떤 인물인가?

신숙주 : 소인의 받은 지식으로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넷째아들로서 처음에는 연왕으로 책봉되어 한 개 도성을 맡아 변방을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조가 승하한 후 맏손자 건문제(건국)가 즉위하자 간신히 별의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켜 남경을 정벌하고 제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수 양 : 음, 자네는 영락황제를 어찌 생각하는가? 나의 조부이신 태종 대왕과 같은 시기에 큰 나라를 평정하여 다스린 제왕일세. 범용, 난 이렇게 생각하네. 나라를 다스리려면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영락제도 한갓 제후인 넷째대군 연왕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훗날 무슨 일을 했겠는가? 영락제도 무능한 황손인 건문제를 밀어치우고 실력을 보여주었으니 천하를 다스리지 않았는가? 내 생각이 어떤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란 동시에 신하와 백성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의미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어린 ‘단종’은 신하들에게 휘둘려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따라서 신하와 백성 위에 군림하는 힘을 갖지 못한 결여된 존재였다. 덧붙여 수양에게 왕권은 왕의 혈통에 종속되어 있다.

수 양 : 이보게 범용, 까놓고 말해서 이 사람은 장차 대업을 단행코자 하네.

신숙주 : 네 대업이라니요?

수 양 : 난 바로 왕통을 지키기 위해 대사를 성취하자 함일세. 지금 이 나라 조정이 누구의 조정인가?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군주가 도대체 누구인가 말일세. 황보인 김종서 늙다리 집종들이 국정을 틀어쥐고서 어린 상감 대신 주인행세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신숙주 : 대군 하오나...

수 양 : 범용, 내 약속하네. 대사 후에 내 그대를 꼭 내 오른팔로 삼겠네. 대업은 성취되네. 자고로 칼을 뽑아든 자의 천하가 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어찌하겠는가? 내 믿음을 받아들이겠나? ...(중략)... 그럼 난 뭐란 말인가? 역적인가? 난 리씨 왕실의 혈통이고 자손이야. 내 손에 이 한몸 바쳐서라도 황보인, 김종서 왕조가 서지 못하도록 지키자는 것인데 누가 역적인가? 자네도 이씨 왕조의 신하겠지?

만약 황보인, 김종서 등이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주인행세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수양대군의 주장을 어떻게 논파할 것인가? <사육신>에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대응논리가 부재하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육신>의 충성은 맹목과 맹종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왕은 왜 왕인가? KBS의 <쾌도 홍길동>에서 제기되는 “넌 왜 왕이 되어야 하는데?”<sup>30)</sup> 의문은 <사육신>에는 애초 자리할 곳이 없다. 그렇다면 이는 절대권력의 영역이 실재하는 북한 사회의 현실의 의식,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로 이 점이 긍정적 인물의 변화를 저해하고 적절한 대립과 갈등을 지체되게 만든 근본적 원인이라 할 것이다. 극적으로 강화되는 수양대군의 위상을 견제할 서사적 논리를 갖추지 못하였기에 세조진영과 사육신 진영의 갈등은 논리적 중심이 없다. 이 결여를 보충하는 전략이 한명회를 비롯한 세조 추종세력의 악덕을 기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었다.

### 3) 태생적인 악덕과 대속의 변주

악인의 중심이며 반동인물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수양대군이 이렇듯 매력적인 인물로 형상화되면서 반동인물군의 행동을 끌어내는 동력은 크게 약화된다. 때문에 한명회와 신숙주, 정인지 등 수양대군측 인물의 부정성이 기형적으로 강화되기에 이르니 역사적으로 제각기 변명과 능력을 보여주었던 이들 인물은 개연성은 극단적으로 추락하고 만다.

우선 한명회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한명회는 극단적으로 비열하고 간교하며 웅졸하고 사악하다. 한명회의 성격을 이처럼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삼문에게 천추의 원한을 품게 되는 갈등의 계기가 지나치게 사적이고 소소하기 때문이며 그 해결책 또한 비루하기 짝이 없

30) 이영미, 『한국인의 자화상 드라마』, 생각의나무, 2008, 195면.

기 때문이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만나 수양진영의 장자방으로 꼽히기 전까지 개경의 태조 이성계의 사저였던 경덕궁의 궁지기로 있었다. 이 작품에서도 경덕궁지기인 한명회가 본분에도 아랑곳없이 경덕궁의 기와를 벗겨 팔아먹으며 과락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한다. 마침 충절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포은 정몽주의 제사가 있어 여기에 포은의 후손 정보, 성삼문, 수양대군 등이 참여하고 한명회 또한 참석하지만 정보와 성삼문에게 참혹한 홀대를 당하며 내쫓기는 것으로 원한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한명회의 문제적 성격은 여러 가지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 핵심은 ‘칠삭둥이’라는 사실이며 이는 여러 문헌에 전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해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이한 출생’ 수준으로 이 일화를 응용할 뿐이지만 이광수는 좀더 우생학적으로 형상화한다. ‘칠삭둥이’여서 괴상하고 흉측한 외모를 가졌고 그 때문에 뿌리 깊은 열등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칠삭둥이’가 놀림감이 되는 것은 사실 단순히 용모 때문이 아니다. 전근대사회에서 ‘칠삭둥이’는 야합에 의해 태어난 자식이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었다. 현대에 와서야 인큐베이터 등 기술의 발전으로 조산된 아기가 무사히 성장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전시대에 칠삭둥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만약 칠삭둥이임에도 무사히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면 이는 사회적으로는 칠삭둥이지만 사실상 정상아로 분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아버가 다르거나 아버가 같다 해도 예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암시한다. 즉 ‘칠삭둥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사회적이거나 신체적으로 결핍된 인간을 의미하였고<sup>31)</sup> 이로 인해 당사자는 평생 칠삭둥이라는 세간의 멸시를 면

31) 예를 들면 홍명희의 <임격정>에서 걱정의 동생은 여덟달만에 태어나서 이름조차 ‘팔삭둥이’였으며 신체적 장애를 지닌 것으로 그려진다. 한명회 출생시에도 조산된 아기가 사람 모습조차 갖지 못하여 부모는 버리다시피 한 것을 유모가 감추어 길렀으니 몇 달 지나자 사람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다고 하였는데 팔삭둥이 또한 손발톱도 변변히 생기지 못했고 부모도 살지 못할 것으로 치부하여 젖도 제대로 먹이지 않

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게다가 한명회는 용모가 괴이하였다. 전근대시기에 용모는 물론 최근과 같이 전방위적인 교환가치를 인정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직설적인 가치 기준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명회는 두뇌가 명석하고 가문이 번성하여 출세를 위한 필요조건을 충분히 갖춘 한 인간이 생래적인 차별을 통해서 어떻게 단련되는가를 보여주는 특별한 문학적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1983년 MBC <조선왕조 오백년>에서 배우 정진이 탁월하게 성취한 이후, 이덕화, 최종원 등으로 이어지는 한명회 배역의 계보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격적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의 <사육신>에는 그 같은 고려가 전혀 없다. 이 작품에서 한명회가 ‘칠삭둥이’라거나 외모가 흉측하다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한명회 역을 담당한 북한 배우 박용철은 호남형 외모에 건장하고 듬직한 체구이며 모의에 능할 뿐 아니라 용력도 출중한 것으로 그려졌다. 즉 이 작품에서 한명회는 비상하게 웅졸하고 교활하며 악랄한 인간이 되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포은의 제사’라는 이념과 권력이 작동하는 특별한 순간에 받은 수모가 이를 대신할 뿐이다. 그러나 이 장면의 원형은 원한보다는 풍자에 가깝다.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발탁되기 직전 개성의 경덕궁지기로 있을 때, 이곳의 서울 출신들이 계를 맺었으나 한명회를 업신여겨 끼워주지 않았다가 다음해 좌익공신이 되자 당시 계원들이 부끄럽고 한스럽게 여겼으며 이를 두고 당시 사람들이 조그마한 세력으로 남을 멸시하는 자를 ‘송도계원(松都契員) 같다’고 비웃었다는 일화가 바로 그것이다.<sup>32)</sup>

게다가 정몽주의 서손녀 정소연을 눈여겨 본 한명회가 정소연을 육보

았는데 동생을 가엾게 생각한 걱정이 돌본 덕분에 무사히 자란 것으로 그려져 있다.

32) 이궁익, 세조조 고사본말-세조조의 상신, 한명회 편, 『연려실기술』 제5권(이덕형 찬, 『송도기이』)

여 정보와 성삼문에게 설욕하고자 계획하면서 이들의 악연이 시작된다. 설정도 여러 문헌의 기록과 크게 배치되어 개연성이 떨어진다. 사실 정몽주의 서손녀는 한명회의 첩이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2년(병자, 1456) 12월 7일에는 ‘전 예안 현감 정보가 성삼문 등이 죄가 없다고 하니 추국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전 예안 현감(禮安縣監) 정보(鄭保)가 난언(亂言)이 있으니, 추국(推鞠)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보의 열매(孽妹)는 한명회(韓明澮)의 첩이다. 정보가 일찍이 성삼문(成三問) 등이 죄가 없다고 말하였는데, 한명회가 아뢰었다.

즉 한명회가 개경에 있으면서 포은의 서손녀를 첩으로 삼은 것은 명백하니 충절가문에 대한 한명회의 원한을 설명하기에는 전거로 보나 갈등의 합리성으로 보나 미흡하기 짝이 없다. 한명회는 정소연을 거듭 납치하여 위협하고 정소연이 산속에서 구명한 어린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의혹을 유발하여 결국 성삼문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 갖은 간교한 술책을 구사한다. 그러나 간교한 술책과 정변을 모의하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이다. 전근대 사회의 최하급주체인 서얼 여성을 모해하는 능력 정도로는 국정일반을 장악하고 기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능한 모사의 자질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갈등이나 열등감의 근본과 같은 인간적인 해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굳이 설명하자면 그 같이 타고난 인간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로지 교활하고 악랄할 뿐이다. 정소연을 사이에 두고 저지르는 정보와 성삼문에 대한 끊임없는 가학적 계교는 극의 전반부를 불합리하고 지루하게 만들었다. 처음 7~6%의 시청률로 시작하여 10% 정도를 목표로 하던 <사육신>이 시청률을 경신하지 못하고 무한 추락하게 된 것은 초반 갈등의 축을 이루는 한명회의 성격화에 실패한 탓

이 크다.

그러나 한명회가 극단적인 악인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해도 신숙주의 억울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신숙주는 동료인 성삼문 등 집현전 학사를 배신하고 부귀공명을 택했다는 점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혹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부인 윤씨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일화는 박종화의 <목 매이는 여자>(『백조』 3호, 1923)의 모티브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변주되어 왔다. 『기문총화』에는 신숙주의 처 윤씨에<sup>33)</sup> 대한 일화가 실려 있다.

문충공 신숙주의 부인인 윤씨는 재상 윤자운의 누이였다. 단종의 복위를 꾀하던 여섯 신하가 죽던 날 저녁, 신숙주가 대궐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의 부인이 두어 자 가랑 되는 베를 가지고 다락 아래 앉아 있었다. 그가 놀라 그 까닭을 물으니, 부인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평소 성 아무개 등과 더불어 서로 친분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형제간처럼 지내시기에, 제 생각에 당신께서는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 돌아가시리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음을 기다려 자결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혼자만 살아 돌아오시리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신숙주는 부끄러워 얼굴이 벌개진 채 대답할 말이 없는 것 같았다. 나중에 신숙주가 임종할 무렵 탄식을 하며 말하였다.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야 뉘우치는 마음이 짝 트나 보다.”<sup>34)</sup>

이는 이극익의 『연려실기술』 5권 세조조 고사본말·세조조 상신 편에도 실려있고 이에 따르면 『송와잡기(松窩雜記)』, 『식소록(識少錄)』 등에도 실려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박종화의 <목 매이는 여자>에서는 신숙주의 처가 남편이 부끄러워 아예 자결한 것으로 한 발 더 나아간다. 이후 이광

33) 신숙주의 처 윤씨는 무송부원군 윤자운의 누이로 본관은 무송이다. <사육신>에서는 세조비 정희왕후가 윤씨를 대하여 동성이라 반가워하는 장면이 있으나 세조비 정희왕후 윤씨의 본관은 파평으로 신숙주의 처와는 다르다.

34) 김동욱 역, 『기문총화 하·세벽강가에 헤오라기 우는 소리』, 아세아문화사, 2008, 469면.



수의 <단종애사>는 물론, 조용만의 희곡 <신숙주와 그의 부인> 등에서 신숙주의 처는 남편을 대신하여 속죄하는 것으로 그려지니 이 작품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신숙주의 처 윤씨는 병자원옥이 있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신숙주가 명나라에 세조의 즉위를 고하는 주문사로 가 있던 1456년 병자년 1월 23일의 일이었다.

임금이 대제학(大提學) 신숙주(申叔舟)의 처(妻) 윤씨(尹氏)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명하여 그 오빠(兄) 동부승지(同副承旨) 윤자운(尹子雲)에게 약을 가지고 가서 구료(救療)하게 하였더니, 갑자기 부음(訃音)을 듣고 임금이 놀래고 애도하여 급히 철선(撤膳)하게 하였다.

어찰(御札)로 승정원에 교시하기를, “신 대제학(申大提學)은 다른 공신의 예(例)와 다르고, 또 만리(萬里) 외방에 있으며, 또 여러 아들이 다 어리니, 나의 애측(哀惻)함을 다 진술할 수가 없다. 정원(政院)에서 포치(布置)하여 관(官)에서 염장(殮葬)하게 하며, 또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는 등의 일을 상설(詳悉)히 아뢰도록 하라.”하고, 관곽(棺槨), 쌀·콩 50석, 종이 70권, 석회(石灰) 50석, 송지(松脂) 3두(斗), 유둔(油菴) 4부(部)를 내려 주었다. (하략)

그러나 이를 같은 병자년의 일로 기억하는 민중의 상상력은 이를 통해 끝없이 신숙주의 변절을 질타하고 있으니 이렇게 만들어진 기억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이 같은 기억을 훌쩍 넘어선다. 함길도 변경에 머무를 때, 독소골의 촌장인 솔매의 아버를 구명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약속을 어겨 솔매의 아버가 죽는 것으로 설정해 두었는가 하면 가까이 지내던 기생 명도가 폐병에 걸렸다 해서 침실로 삼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바로 발길을 끊는 비겁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몽골로 가는 길에 병이 나자 동행한 성삼문에게 돌아가자고 보채는 무책임한 행동까지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

신숙주의 비겁성이 강화되면서 극단적으로 대비되던 신숙주 처의 현숙함은 일정하게 축소된다. 림종상의 원작에서는 신숙주 처의 현숙함을 전제로 이에 따라 집현전 학사들이 수렴 대면이라도 하자며 장난을 치는 사건을 안배하였다. 어질고 현숙한 신숙주의 처가 지아비의 체면과 여인의 행실법도 사이에서 곤란에 처한 상황을 명랑하게 보여주면서 지아비 신숙주의 휘절과 정반대의 지점에 맞세운다. 그러나 TV드라마 <사육신>에서는 그 같은 장면이 모두 삭제되고 오히려 신숙주의 무신(無信)을 강조하는 일화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성격적 비무함을 극대화한다. 즉 신숙주가 휘절한 것은 단순히 수양대군의 회유와 협박에 나약하여 굴복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성정이 비겁하고 신의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보면 박종화가 설화에는 없는 핑계로 ‘여덟 자식’을 위한 행동으로 변명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적이다. 신숙주의 처 윤씨가 자결하는 박종화의 작품에서도 대속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신숙주에 대한 단죄로도 읽을 수 있는데 비해 <사육신>에서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신숙주의 행동이 반복됨에 따라 현숙한 윤씨가 지아비를 대신하여 죽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대속하는 여성 인물이 ‘신숙주의 처’ 하나인 것은 아니다. 여성인물에 의한 대속은 이 작품의 주요한 미적 키워드에 하나이다. 박팽년의 누이 박자혜는 ‘콩쥐팥쥐’의 신발 설화, 또는 신상옥 감독이 1984년 북한에서 만들었던 영화 ‘춘향전’ <사랑 사랑 내 사랑아>에 쓰였던 일화처럼 벗겨진 신발이 인연이 되어 수양의 후실로 들어간다. 그러나 작중 박자혜는 아버 박중립 편에서 찾아도 오라비 박팽년 편에서 찾아도 발견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다. 세조의 후궁 근빈 박씨는 관향과 출신이 알려져 있지 않다. 1425년 출생하였고 몰년은 남아있지 않으며 다만 연산군 10년 일기에 거론된 바가 있으므로 1504년까지는 생존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조 생존시에는 직품이 숙의에 이르렀고 예종 즉위시에 귀인에 봉하였으

며 성종 14년(1484)에 빈으로 삼았다. 덕원군과 창원군 두 아들을 두었으며 덕원군의 초취는 이름높은 점필재 김종직의 딸이다. 따라서 병자원옥(1456년)에 오라비의 죽음을 앞두고 먼저 자결한다는 설정은 완전히 허구이다.

또한 아들을 격려하며 아들의 죽음을 승인하는 유성원 모친의 슬픔은 자신의 죽음조차 넘어서는 비극이거니와 김종서의 수양딸로서 이정옥을 보필하다 결국 죽음을 당하는 솔매, 한명회 일당의 가혹한 폭행과 핍박에 결국 난산으로 목숨을 잃는 하천목의 아내, 한명회 일당의 횡포로 남편을 잃고 복수하기 위해 원수에게 독약을 먹이려고 먼저 독이 든 술을 마셔 목숨을 잃는 양수척 무소의 아내, 폐병에 걸려 마치 <홍루몽>의 임대옥처럼 신숙주가 준 시고를 불태우며 죽어가는 기생 명도에 이르기까지 <사육신>의 여성인물들은 무수히 죽어간다. 간악한 인물들의 주변에서 그들 때문에 죽어가는 나약한 존재가 하필 대부분 여성이라는 것도 짚어볼 문제라 하겠다.

#### 4) 민중 인물의 생동성

이 작품에서 가장 공들여 축조한 ‘정소연’이란 인물도 <다모>의 진채옥이나 <대장금>의 서장금 같은 인물을 이미 만난 한국의 시청자들에게는 역시 밋밋하다. 그러나 가장 공들인 만큼 여러 모로 매력적인 인물임에는 분명하다.

북한판 <사육신>은 기록상 한낱 한명회의 첩실이었던 이 인물을 완전히 새로이 해석하여 중심인물로 재창조하였다. 첫째 정포은의 후손으로 정소연은 충절가문의 절조를 계승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사실 한국 사회에는 이념적으로 여전히 적서차별이 존재한다. 특히 사극에서는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적서차별에 의거하여 충절이나 절개는 여전히 적통의 몫이며 서열에게는 반역이나 혁명의 이미지가 부수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러나 북한판 <사육신>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상식을 의도적으로 보일 만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적서의 구분이 전혀 없이 서손녀인 정소연에게도 충절가문의 후손으로서 똑같은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적서차별뿐만 아니라 남녀차별도 넘어선다. 림종상의 원작에서 조정심이 데리고 탈출하는 아기는 성삼문의 막내딸이요, 정소연이 데리고 떠나는 것도 성삼문의 맏딸 아경이다. 역률에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관비를 삼게 되어 있다. 죽음을 노역(奴役)보다 가혹하게 여겨 박팽년의 집에서는 종의 자식과 박팽년의 자식을 바꿔 후사를 이었다는 아사가 전해와 오태석 <태>의 소재가 되었을 정도인데 북한판 TV드라마에서는 이를 완전히 전복하였다. 죽음을 앞둔 어린 남동생들을 두고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아경의 논리는 죽는 것보다 관비가 되어 욕을 보는 것이 더 나쁘다는 것이었다. 정절에 대한 북한 사회의 보수적 측면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음보다 노역으로 사는 것이 더 나쁘다는 계급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다.<sup>35)</sup>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 작품에서 분명한 것은 여성의 정절이 남성의 충절에 상응한다는 사실이다. 누명과 오해를 극복하고 사랑을 지키는 한미하고 연약한 정소연의 행보는 때로는 물러서고 때로는 타협하면서도 뜨겁고 순직하게 충절을

35) 이에 추가하면 북한 문학에 두드러지는 육체성의 결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성삼문과 조정심은 서로 마음을 확인한 지기이지만 이들에게 육체적 사랑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드라마에서 정소연과 성삼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김종서의 수양딸로 설정된 여진녀 ‘솔매’의 경우도 그러하다. 또한 이광수와 신봉승 등은 모두 첩실로 기록하고 있는데 야사(野史)에 전하는 바로도 그러려니와 전근대 사회의 관습을 감안해도 수양딸이란 설정은 다소 비현실적이다. 이는 주체사상 이후 소설, 영화 등 예술서장르에 도입된 가부장적 경향과 일치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논문에서 상세히 접할 수 있다. 소설 <불타는 섬>에서 대등한 주체이던 남녀주인공은 영화에서는 부녀관계에 준하는 중년의 중대장과 어린 처녀로 전환된다.

이선미, 「북한소설 <불타는 섬>과 영화 <월미도> 비교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2004.

지키는 성삼문의 행보에 대응한다. 그리고 이렇게 부여된 정절의 의무 덕분에 정소연에게 누명을 씌워 정보를 모욕하고 성삼문의 연정에 의심 을 심어 갈등을 야기한다는 설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교활하고 악랄한 한명회는 정소연의 오라비 정보와 성삼문 등에게 모욕을 받자 정소연을 주목하고 그녀를 납치하여 그녀가 정조를 잃고 한명회의 첩이 되었다고 소문을 낸다. 이를 믿은 정보와 성삼문은 정소연을 외면하고 발붙일 곳이 없어진 정소연은 집을 떠난다. 외숙 나길석과 사촌 곱단이의 두호를 받지만 한명회 패당의 강박을 피해 산중을 헤매다가 성삼문 집안의 면천 노비 하천목의 구원을 받고 양수척 무소와 무이 형제를 만나며 하천목의 아들을 거두어 돌보다가 결국 기녀 리정(離情)이 된다. <삭풍>의 기생 조정심과 만나는 대목인데 정소연의 경우, 성삼문과 다시 만나 오해를 풀고 성삼문의 후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지만 한명회의 협박으로 성삼문의 아기를 잉태한 채 잠적하였다가 아들을 낳은 후 가산을 적몰할 즈음 도피한 성삼문의 딸 아경을 데리고 성삼문의 후사를 이어간다. 여성의 역할을 절개와 후사에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최근 대적이기는 하나 끈질기게 이어가는 시대정신의 모태라는 상징적 의미로 보자면 여성영웅의 전형에 근접하다고도 하겠다.<sup>36)</sup>

게다가 이러한 정소연을 중심으로 부가된 가상의 인물은 외숙 나길석, 곱단이, 무소·무이 형제, 하천목, 하천목의 아내와 아들, 기방의 동료 등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인물이다. 그리고 이들 인물은 오히려 나름의 개연성을 갖고 형상화되고 있으니 기층민의 형상화에 문학적 노

36) 정소연이 성삼문의 정실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성삼문의 부인 차산은 신숙주의 부인과는 정반대로 일찌감치 횡사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도 흥미롭다.

성삼문의 처 차산과 그의 딸 효옥은 윤성부원군 박중우의 노비가 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2년(1456) 9월 7일.

성삼문에게는 일찍이 박임경(朴臨卿)에게 출가한 딸이 있어 성삼문의 제사는 외손이 계승하였다고 한다.

력을 경주해온 북한 문단의 저력을 보여주는 듯하다. 우선 서손녀라는 정소연의 한미한 신분은 가난하지만 인정 깊은 외가 식구들로 이어진다. 나길석의 겁 많고 조심스럽지만 변할 줄 모르는 진정성은 결국 변절이란 탐욕의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귀엽고 명랑하고 솔직한 외사촌 곱단이도 어린 처녀다운 순진한 정의감으로 사회적 편견에 좌우되지 않고 정소연을 지원하며 무이와 멜로라인을 형성하면서 기층민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또한 그들과의 인연에서 확장된 면천노비 하천목은 산막에서 사냥과 화전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산속에서 자결하려던 정소연이 우연히 하천목의 아내를 만나고 그 출산을 돕게 되며 출생 후 어미를 잃은 아기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아기를 돌보느라 하산하여 마을에 의탁하게 되는 과정도 비교적 자연스럽다. 또한 도피 중에 우연히 만난 양수척 무소와 무이 형제가 우직한 천성에도 불구하고 한명회 패당에 참여하여 나쁜 일에 휘둘리지만 결국 초심을 잃지 않고 성삼문을 순직한 의리와 인정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그럴 듯하다.

즉 조선중앙TV의 <사육신>에서 가장 빛나는 대목은 인물의 관계설정에서 두드러지는 민중성이다. 특히 성삼문과 연정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정소연은 한명회와 성삼문의 갈등, 성삼문과 기층민중의 연대를 매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중앙TV판 ‘사육신’의 핵심을 이룬다. 즉 소설 <사육신>에서 시도되었던 개인적 갈등과 고통의 계기를 대폭 확대하여 극적 사건의 내용을 대거 보완하는 데도 정소연의 이력이 주요하게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창안되는 새로운 인물군은 단순한 조력자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양반계급의 권력투쟁이었던 ‘사육신’ 사건에 민중사적 의의를 부가한다. 이들 덕분에 사육신의 충의는 민중 모두의 것이 되며 이들의 정의로 거듭 난다. 즉 이들의 지지와 협력을 매개로 기층민중의 지지를 받는 사육신의 형상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니 사육신의 충의는 단순히 이들의 희생을 의미함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함으로써 성취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설문법상 립중상은 넘어설 수 없었던 ‘백성들과 무관한 이야기’였던 ‘사육신’의 이야기는 이로써 ‘백성들의 이야기’로 재탄생한다. 영웅적 하위주체의 재발견으로 그 한 가지 특징을 규정할 수 있는 최근 한국사회의 사극 경향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점이 진정한 의미의 비교대상이라 할 것이다.

#### 4. 맺음말

이상으로 북한 조선중앙TV의 <사육신>의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실 TV드라마의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연출방식과 이 같은 인물의 형상과 사건 전개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촬영미학에 대한 고찰이 병진되어야 하지만 한꺼번에 다루기는 어려웠다. 아울러 사용된 음악과 감정처리의 연관성에도 신파조라는 말로 쉽게 재단하기에는 간단치 않은 복잡한 지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과제로 남긴다.

박인서·김일중 극본, 장영복 연출의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사육신>은 원작인 립중상의 소설 <사육신>(원제 삭풍)의 의도를 계승하여 우선 사육신의 개인적 갈등과 고통의 계기를 대폭 확대한다. 우선 성삼문의 경우, 교활하고 야비한 한명회와 거듭되는 악연으로 갈등이 증폭되니 그 핵심은 정몽주의 서손녀 정소연과의 삼각관계이다. 이는 다소 과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삼문의 결단의 이면에 단순히 대의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대립을 배치하여 그 인간적 면모를 강화하고 성격적 개연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정소연을 중심으로 단순히 양반계급의 사건이었던 병자원옥을 기층민중이 연관된 백성의 이야기로 재축조한 측면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최근 한국의 영웅적 하위주체의 적극적 형상화 경향과 비교할 때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겠다.

그러나 세조정변에 대항하는 사육신의 충의는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

다기보다는 인간적 정리와 맹목적 추종에 가깝다. 수양대군의 집권논리는 부정되지 못하며 따라서 수양대군이란 인물이 지니는 성격적 설득력 또한 상당하다. 이는 왕권 또는 절대권력에 대한 북한사회의 입장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한명회, 신숙주 등의 반동인물은 태생적으로 규정되며 이렇듯 단순하고 평면적인 인물 형상은 작품에 심각한 한계를 노정한다. 물론 이들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연기는 일부 호감을 낳기도 했지만 순진한 선악대결, 낯선 배우, 익숙하지 않은 발성, 낡은 프레임 등은 TV드라마에 관한 한, 최고의 수준이라 자부해도 좋을 만큼 세련된 한국의 시청자들을 사로잡기에 한참 역부족이기도 하다.

<사육신>의 의미는 최초의 100% 조선중앙TV 제작이라는 데 한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역사를 보는 관점에 관한 것이다. 이제 조선중앙TV의 <사육신>을 징검돌 삼아 가야할 길은 아주 멀다. 무턱대고 민족애에 호소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 장기적인 구상 하에 개입과 소통이 가능한 교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립중상, 『삭풍』,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립중상, 『사육신』 1~2, 이가서, 2007.

『조선왕조실록』, 이궁익, 『연려실기술』

김동욱 역, 『기문총화-새벽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 아세아문화사, 2008.

<http://www.conpia.com/tv/drama/index.php?gID=271805841>

[http://www.kbs.co.kr/end\\_program/drama/sayugins](http://www.kbs.co.kr/end_program/drama/sayugins)

##### 2. 2차자료

###### (1) 논문

- 박영정 외, 「남북문화교류정책과제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12.  
 성대경,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통일시론』 창간호, 1998.12.  
 윤진현, 「북에서 온 <사육신>」, 인천문화재단, 『플랫폼』 6호, 2007.10.  
 이선미, 「북한소설 <불타는 섬>과 영화 <월미도> 비교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2004.  
 이영미, 「윤진현 '북한조선중앙TV <사육신>의 인물연구'에 대한 질의문」, 한국극예술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 2010.5.15, 2면.  
 임옥규, 「북한 역사소설의 고조선·고구려 형상화 연구-<주몽>, <담징>, <부루나의 밤>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2007.5.  
 전영선, 「남북합작 드라마 <사육신>의 제작·방영 의미와 과제」, 『자유공론』, 2007.9.  
 정두희, 「단종과 세조에 대한 역사소설의 검토」, 『역사비평』 18호, 1996.2.

## (2) 단행본

- 공임순,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책세상, 2000.  
 김병룡, 박승정 작·구성/그림 차형삼, 김명제, 『만화 조선의 력사·리조편1』, 평양: 조선출판물교류협회, 1998 참조.  
 김정일,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리현길 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문예학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8(중세편 리조사1)』,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손영중 외, 『조선통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이영미, 『한국인의 자화상 드라마』, 생각의나무, 2008.  
 이효인 외, 『통일 한국인이 보아야 할 북한영화 50선』, 영화진흥위원회, 2002.  
 임옥규, 『북한역사소설의 재인식』, 역락, 2008.  
 전덕성,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 평양: 평양출판사, 2004.6.  
 전영선·이명자, 『북한영화 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영화진흥위원회, 2007.

## Abstract

## A Study of TV Drama <Sa'yuk-shin>, aired on North Korea's Joseon Central TV

Youn, Jin-hyeon

Drama <Sa'yuk-shin>, produced by Joseon Central TV of North Korea in 2007, and recently aired on KBS, is the first drama ever conceived under the joint effort of South and North Korean broadcast stations, and it also provides us with an opportunity to look into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North Korean history fictions. This drama was based upon Rim Jong Sang's <Sa'yuk-shin>(Originally titled as <Sak'pung>), and portrays the events that began with the birth of king Danjong, then unfolded with the Gye'yu-year purge and the Byeongja-year criminal case. Rim was awarded with the Kim Il Seong prize, the highest honor for literary figures in North Korea. In his novel, he presented Seong Sam Mun as the main character, and highlighted many things, such as his romance with a Gisaeng figure named Jo Jeong Shim, the love affair between his oldest daughter and Shin Suk Ju's son Shin Jeong, and his love for his five-year old youngest daughter. In short, he added a personal touch to the Seong Sam Mun character, and tried to highlight the character's own agony and sacrifice.

Based on this novel, drama <Sa'yuk-shin>, scripted by Park In Seo and directed by Jang Yeong Bok, amplifies Rim's intentions, and portrays the Six Martyred Vassals' inner conflicts and pain with great detail. For example, Seong Sam Mun has a bad relationship with the cunning Han Myeong Hwe who also had an inferiority complex, yet such bad relationship takes a worse turn when they both come to share a relationship with Jeong So Yeon, the illegitimate grand daughter of Jeong Mong Ju. This whole situation is a bit exaggerated, yet it is designed to add a human aspect to Seong Sam Mun's 'honorable'

decisions. This kind of method is usually employed in portraying protagonists in North Korean literature.

Most interesting characters are Jeong So Yeon and her associates. After going through some difficulties she finally becomes a Gisaeng figure. She was the reinvention of the Jo Jeong Shim character in Rim's <Sa'yuk-shin>. Yet she also serves as a catalyst for setting off the triangular relationship among herself, Seong Sam Mun and Han Myeong Hwe. It is a stark departure from the novel version's Seong Sam Mun, as in that version he kept his feelings to himself, in a fashion similar to that of Shilla dynasty's Kim Yu Shin who had to bury his feelings toward a female named Cheon'gwan. Jeong was essentially a low-born character as she was established as the illegitimate grand daughter of Jeong Mong Ju, but her family members on her mother's side are described as components of a tightly knit family, and other characters like Na Gil Seok or Gob-dan'i, and their associates like Ha Cheon Mok or Mu'ih, all serve important roles of supporting the main character Seong Sam Mun with their own loyalty and kindness, while also keeping in touch with the Han Myeong Hwe party. They are not randomly created characters, and in fact were carefully crafted to serve the main theme of <Sa'yuk-shin>. As much as their support and assistance are highlighted, it becomes more possible for the readers to identify the six martyred vassals as honorable governmental officials who had support from the public.

Key words : Joseon Central Television, <Sa'yuk-shin(Martyred Six Vassals)>, <Sakpung>, Jang Yeong Bok, Park In Seo, Rim Jong Sang, King Sejo, Gye'yu-year purge, Byeongja-year criminal incident

접 수 일 : 2010년 8월 31일

심사기간 : 2010년 9월 1일~9월 30일

게재결정 : 2010년 9월 30일